

소비자검사 및 칼라칩을 이용한 한과의 기호색 연구

김희섭 · 이정희*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대 아시아식품영양연구소

최근의 경향은 소비자들이 외국 디자인 및 색상을 경험함에 따라 식품을 선택할 때도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한 색상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의 색은 음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관능적 요소로서 색상은 디자인과 함께 모든 상품에서 마케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전통 한과의 경우도 과거 보다 전통색보다 흐린 색을 선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통식품 중 한과를 대상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색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분홍 및 쑥색 한과제품 각각 3종을 대상으로 관능검사와 칼라칩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색에 관한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colorimeter를 이용하여 색도를 측정하였다. 색상 및 색조의 명명은 IRI Color System(Hue & Tone 120)에 준하였다. 분홍한과의 경우, 가장 좋아하는 색은 연한 자주(very pale red purple)이었다. 분홍한과의 색으로 가장 선호하는 칼라칩 색상은 연한 자주(very pale red purple)였으며 연한 빨강(very pale red), 맑은-연한 빨강(very pale to pale red)순이었다. 쑥색 한과의 경우 녹청색 제품의 기호도가 맑은 녹색제품보다 기호도가 높았다. 가장 선호되는 분홍 한과의 색은 L27.2, a 2.11 b 1.18 이었으며 쑥색은 L 23.12 -1.14 b 4.13 이었다. 소비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색 기호도에 영향을 주었다.